



청년낙농인 교육,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올해 초 본격적으로 낙농을 시작한지 벌써 6개월째,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 진학하여 꿈을 키우며 학교를 오가면서 농장일을 도와드리며 목장운영의 기본을 배웠다. 대학 졸업 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체계를 잡자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하는지 백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7월에 진행된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을 다녀오시고 ‘청년낙농인 교육’ 또한 열린다고 하셔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이원호
충북 청주 재원목장

청주시 청원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목장은 착유우 43두, 육성우 21두, 총 84두를 갖추고 있는 목장으로, 아버지께서 젃소 두 마리로 1980년대에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로 하나둘씩 자리가 채워지고, 모든 교육

이 그렇듯 기대감과 어색함 속에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 1기라 그런지 청년낙농인들의 참여가 조금 미진하기는 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나서 각자의 목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일정한 낙농특강에서 낙농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생 때 혼자 준비 했던 발표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었고, 남들보다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왔던 내용들이라서 좀 더 쉽게 다가왔다.

이어서 나현채 대표님의 목장경영 강의를 통해 상소했던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목장을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다.

하육원 서기관님과 손정렬 협회장님과의 대담 때는 많은 선배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시간이 새로 시작하는 2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라기도 했다.

본격적인 회계 및 목장경영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원가계산, 재무제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됐다. 목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 얼마가 지출되고 수입이 얼마인지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었다.

교육 중에 가상으로 목장을 만들어서 재무설계를 하고, 그 목장의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보면서 앞으로 목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할



지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낙농선배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으로 잘 몰랐던 부분을 몸소 체험하고 보완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이제야 아버님 세대에 해왔던 일들을 똑같이 하려는 것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체계시켜야 하는지 윤곽이 잡히는 듯 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수입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당장 우리목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막연하게 착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앞으로는 더욱 넓은 관점에서 사양관리와 가축 질병에 대한 문제, 축사의 상태와 관리 등 수익성과 연결되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경써야겠다.

앞으로 나의 목표는 아버님이 30년 평생 해 오신 이 목장을 좀 더 체계화 시키고 경영자의 마인드로 기업처럼 생각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특히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목장형 유가공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체계적인 목장경영은 필수불가결이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때 원가계산과 재무제표 등이 꼭 필요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일정이 다소 짧아서 아쉬웠지만 많은 것을 배워왔다. 교육일정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본다. 청년낙농인 교육이 더 많은 2세 낙농인에게 알려져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낙농을 이끌어가는 도약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 ☺